

# 순창군, 120대 중점사업 집중

## 사업 선정·분기별 보고회 등 통해 추진상황 수시 점검·안정성 확보

순창군이 민선 7기 남은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120대 사업을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임 이남섭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을 총괄지원반장, 각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임명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분기별 보고회와 연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고삐를 훨 생각이다. 이번 달까지 각 부서별로 사업 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중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출범한 미래발전기획단 위원의 자문을 통해 각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확보,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고견을 들어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이번 12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은 공

약사업을 비롯해 신규사업 등을 대거 포함시켰으며, 공약사업 중 정상적인 추진사업은 제외했다.

예산이 소요되는 각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5,000억원 달성이되는 미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체 120개 사업에 대한 사업목록이 각 부서별로 하달된 가운데 몇 가지 사업이 눈에 띈다. 지난 몇 년간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익성 확보문제와 유지비 최소화,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8월 있었던 섬진강 댐 방류사태로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섬진강 제방 정비에 대한 사업안도 마련된다. 여기에 천혜의 자연환경인 섬진강을 활용한 수변

개발, 멀거리촌 조성, 예술인 마을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들도 포함된다.

국가예산확보 성공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농촌협약사업, 순창읍 도시재생, 유기농복합단지 조성 등도 세부계획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순창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투자선도지구의 자생적인 운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도 제시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12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순창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수시로 각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해 민선 7기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연장

## 임실군, 6월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극복 위해

임실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특례제도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적용한다.

201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기준보다 2배 확대했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하고 공정성·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

자시스템(G2B)을 통해 운영한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결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신속집행과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상반기 발주 공사는 긴급입찰을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집행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도로망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나서

남원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18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망 구축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정비에 나선다.

먼저, 지역간 연계성을 높이는 지역 개발을 위한 읍면지역시도와 농어촌도로 10개 지구에 72억원을 투자해, 이밖에서 운봉으로 가는 평춘~강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송동면과 수지면을 연결하는 부석~오촌간 도로 확포장 등 수송·물류비 절감과 농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한다.

또한, 26억원을 투자해 마을을 진입하는 기존 도로쪽이 협소하고 차량교행이 어려운 인월장령마을, 운봉 장동마을 등 7개 노선에 대해 도로를 확장·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보다 거주하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지호 남원시 건설과장은 “시에서는 도로망 개선 및 확충,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등으로, 시민들의 눈과 발이 되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가축재해 대응 지원사업 적극 추진

남원시가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농가 경영손실을 예방하고자 가축재해 대응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은 여름에는 가축이 고온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료섭취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발육이 저하되고, 번식장애 및 면역력 약화 등 폐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이를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확기펜(소형, 대형), 지붕스프링클러, 쿠링패드 등 3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에서 환기펜·지붕스프링클러는 전축종, 쿠링패드는 돼지, 털 사육농가이며, 해당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N치즈, 대중국 수출길 공략 시동

## 심민 군수, 중국 관계자들과 수출방안 간담회 갖고 활로 찾기 논의

대한민국 치즈의 대표 브랜드인 임실N치즈가 대중국 수출길 공략에 시동을 건다.

임실군은 최근 대한민국 대표 원조 치즈인 ‘임실N치즈’의 대중국 수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수출길 활로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심민 군수와 중국 연길시정부 서울주재대표부, 안영걸 대표, 대중국 무역업체 라이프어페럴 정근호 대표, 임실치즈농협 심승만 상임 이사 등이 참석하여 대중국 수출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평소 고향 사람이 남다른 임실군 출신의 이근재 새한건설(주) 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최근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서양 음식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어린이와 젊은 층의 치즈 수요 증가로 유제품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치즈 시장 규모는 65.5억 위안(약 1조1,115억원)에 달하고, 2023년까지 105억 위안(약 1조7,817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치즈산업은 아직 품질과 기술 수준의 한계로 유제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임실군은 잠재력이 큰 중국 치즈시장을 품질이 우수한 임실N치즈로 공략해 볼 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임실군은 최근 대한민국 대표 원조 치즈인 ‘임실N치즈’의 대중국 수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수출길 활로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부적인 실무협의가 진행되면 임실N치즈 생산업체인 임실치즈농협은 농협중앙회 무역전담 자회사를 통해 수출물량을 선적, 중국 즉 회사에서 유통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최대한 세부 협의를 서두르면 빠른 시일내 중국 수출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실군의 대표 특산품인 임실N치즈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축산, 유가공 업계

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내 유가공업체가 판로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실N치즈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 관련 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임실N치즈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수출방안을 찾아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이환주 남원시장, 남원의료원 격려 방문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이 18일 코로나 전염병원으로 지정된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격려품(파자류, 음료 등)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달은 입원 중인 환자들의 빠른 폐유를 기원하고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자 추진됐으며, 그동안 부시장이

수차례 남원의료원을 찾아 격려하며 응원하는 등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이고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날 남원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은 남원지역에도 확산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빤뜻으로 위험하고 고된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치료와 간호에 힘쓰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임실군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18일 임실군에 따르면 관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109명 전원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세

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타 시도의 대중교통 종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안이 기증되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지하려는 심민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되며, 군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을 활용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